

은혜로 새벽묵상 (01/28/22)

찬송: 377장 (새 449장)

사도신경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1. 오늘의 말씀

우리는 매일 길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다닙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인생과 길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단지 두 개의 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두 개의 길 (빛과 어둠, 참과 거짓)이 있으며 두 개의 운명 (천국과 지옥)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 (의인과 악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세 번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것들을 비교하시며 말씀을 요약하고 계십니다.

* 두 길 (13-14절) : 믿음의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은 인간의 사고와 이론과 철학과 사단의 영감으로 주어진 인간의 행위로 다져진 길인가 하면, 좁은 문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벧전1:20)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졌으며 (엡1:7-12) 성령으로 굳게 인이 쳐진 문입니다.

믿음의 시작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셨는지요. 나는 지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 두 동물 (15절)**

양과 이리, 두 동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 왔으나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옮겨갈 수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왔어도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과 성령을 주셨지만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시켜 넓은 길인 멸망으로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 (고후 11:14)처럼 나타나기에 가짜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목자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으로 확신하며 성령의 충만으로 이기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 두 나무 (16-20절): 믿음의 진행**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1:11-12, 21,25)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종류대로 재 생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가 사과를 맺지 못하며 개가 고양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같은 진리로 죄인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실의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죄인은 죄의 열매를 맺고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갈 5:22-23)를 맺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길을 선택하고 걷고 있습니까? 오늘도 좁은 길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되시길 축원합니다.

2. 오늘의 기도

- 성령의 충만함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